

韓 진출 日 소재업체, 수천억 벌고 사회공헌 뒷전

신에츠·스미토모 등 국내에 법인 주요매출처 상당수는 국내 업체 영업이익 높지만 고용효과 적어

일본 소재 관련 업체 상당수가 국내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면서도 고용 효과와 사회 공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9일 나이스신용정보에 따르면 신에츠와 스미토모, JSR와 TOK는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 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업체다.

법인명은 각각 한국신에츠실리콘, 스미토모전공일렉트로닉스, 제이에스 알마이크로코리아, 티오케이첨단재료다.

신에츠와 스미토모, JSR는 일본 본사가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했다. 신에츠는 1986년, 스미토모와 JSR가 각각 2003년에 문을 열었다.

TOK만 일본 TOK가 90%, 삼성물산이 10%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2013년 합작회사로 만들었다. 인천 송도지구에 첨단재료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세웠다.

대표도 대부분 일본인이다. 신에츠는 다케다카즈미, 스미토모는 하세가와



삼성물산은 2013년 일본 TOK와 공동으로 티오케이첨단재료를 설립했다. /삼성물산

카즈오, JSR는 네모토히로아키가 대표를 맡고 있다. TOK만 내국인인 정준체제를 유지 중이다.

4개사 매출은 스미토모를 제외하고 지난해 말 기준 총 5532억원 수준이다. JSR가 21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에츠가 209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TOK는 1248억원이었다. 스미토모는 2015년까지 공시 자료를 냈으며, 당시 매출이 339억원 가량이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 신에츠가 약 21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었다. JSR은 86억원, TOK가 67억원으로

업체였다. 특히 JSR는 LG디스플레이(34.37%), 삼성전자(28.63%) 등 매출 절반 이상을 주요 업체에서 거둬들였다.

그러면서도 고용효과는 턱없이 적었다. 직원수는 JSR가 168명, 신에츠가 129명, TOK가 124명이었다. 사회 공헌에도 인색했다. 신에츠가 1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회사는 기부금 내역을 표기하지 않았다. 총 급여도 35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종업원 1인당 연봉이 평균 3000만원 수준, 실제 임금은 더 낮다는 얘기다.

특히 JSR은 번 돈을 모두 본사로 보내고 있었다. 배당 성향이 무려 100%였다.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210억 원을 모두 JSR에 배당했다.

그나마 JSR은 연구개발비로 48억원을 쏟아부었다. 나머지는 연구개발비에 별다른 지출을 보이지 않았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연합뉴스

JY, 일본 일정 길어졌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서 더 오랜 기간 체류하게 됐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귀국 일정을 며칠 더 미뤘다. 당초 재계는 이 부회장이 9일 귀국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3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현지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청와대에 간담회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수출 규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 임원들과 만나 우회 수출 등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그러나 현지 업체도 강경한 일본 정부 태도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김재웅 기자

웨이퍼 등 대체 가능… 中企 장기전 취약

» 1면 '日 추가규제 다음 타깃…'서 계속

첫 규제보다 피해 크지 않을 듯
중소기업 "6개월 버티기 어려워"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일한 웨이퍼 생산사인 SK실트론은 실리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일본산 실리콘이 순도가 가장 높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전언이다. SK실트론은 글로벌 점유율 9%, 300mm 웨이퍼 기준으로는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웨이퍼도 절반가량을 일본에서 수급한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웨이퍼나 실리콘으로 확대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단, 업계에서는 웨이퍼 수급이 어려워져도 첫 번째 규제 조치만큼 피해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과 독일 등에서 웨이퍼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웨이퍼 실리콘을 제외한 다른 반도체 소재·부품으로 규제가 확대돼도 그리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1차 수출 규제 품목인 리지스트와 애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제외하면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도 국산 품으로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작기계는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로 크기가 크고 비싸 사용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신규 수요가 그리 높지 않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공작기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국산을 비롯해 유럽 등에서 대체 수입 가능하다.

공작기계 중 NC(수치제어)장치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 공작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의 수입이 감소하고 중국, 대만, 독일,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작기계를 만드는 현대위아 관계자는 "일본에서 NC(수치제어)장치의 경우 약 30% 정도 수입하고 있지만, 선호도가 일본장치일 뿐이지 아예 대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탄소섬유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탄소섬유는 원사를 대부분 일본 도레이사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등으로 수입처를 다각화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 중 효성이 탄소섬유를 생산해 국산 제품으로 대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영향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본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6개월 이상 수출규제가 계속될 경우 견디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 소재 개발 또는 소재 수입 다변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 답했다.

응답 중소기업의 42%가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답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상당히 높았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뿐이었다.

/양성운·김재웅·배한님 기자 ysw@

2019년 8월 21일 까지

**지금 바로
가까운
증권회사에서**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세요**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증권관리는 더 편리해지고
증권거래는 더 안전해지며
자본시장은 더 투명해집니다
8월 21일 까지
당신의 종이증권을 맡겨주세요

자본시장이 8-만큼 좋아집니다
전자증권제도

• 8월 21일 까지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마감 시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증권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종이증권 보유주주에게 2019년 9월 16일부터 종이증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KSD